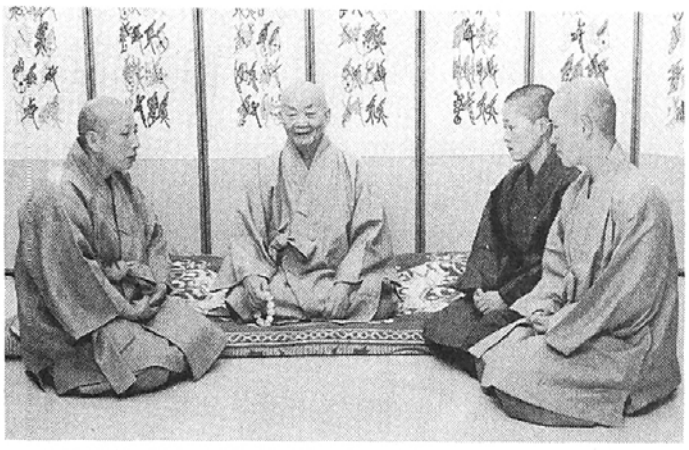
큰 스님 수행한담

마음을 깨끗히 하세요"



◇상좌 혜명 · 혜경 · 수혜(사진 왼쪽부터) 스님과 법담을 나누고 있는 혜양스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등불하나 밝히면 길을 찾듯 일심으로 '아미타불' 부르면 세상보는 눈 달라집니다"

'반드시 깨우치겠다' 금강같은 발심있어야

"밥값 해야지…아직도 공양시간 무서워요"

나 나를 도와주던 주변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을 것 같아 상해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1923년 부산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북만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후 중국 절강성 항주대학원에서 정치학공부를 하던 중 배재학당시절 애국상호회와 애국상친회 등을 조직하여 애국운동에 앞장섰던 서한기, 서기호, 서한수, 진호영 등이 찾아와 독립 운동을 하자고 권했습니다.

모든 희망을 다 버리고 일본에서 못다한 독립운동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 때의 결심은 대단했지요. 독립운동은 화합과 힘이 결집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북만주, 몽고, 소련, 중국 지역에 있던 독립단체인 애국중진협회, 한국독립단, 독립동지회, 여성애국협력단, 소년회 등을 한데모아 '배달독립협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단체들을 조직하여 독립을 위한 화합을 견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대로 한국인 마을을 방문해 독립사상 고취를 위한 모임을 갖고 연설을 했습니다. 또 '배달신보'라는 주간지를 발간,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단합을 키워주었습니다.

이렇게 1년여가 지나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일본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 애국단체대표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명예와 안락, 권세를 모두 버리고 애국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온 것인데 서로 세력을 차지하려고 같은 동포들끼리 싸운단 말입니까. 독립운동을 앞장세워 허세를 부림은 우리 애국동지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제부터 과거의 모든 잘못을 청산하고 참된 애국정신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합시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체의 명리야말로 헛된 것이니 미혹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탐욕의 잔가지, 어리석음의 잔가지를 비롯하여 온갖 악의 잔가지들을 잘라버릴 때 성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앞의 명예에 안주하는 것은 눈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든채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싸움은 계속되었지요. 이같은 싸움으로 인해 결국 나는 요즘말로 테러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하도 분해서 몇몇동지들과 함께 동포들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마을을 찾아다니며 연설을 했습니다. 결국 태평촌이라는 마을에서 또다시 테러를 당했고 몸도 많이 다쳤습니다.

그때 '이제는 죽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한 상황에 이르니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부처님이셨습니다. 아마 내 마음자리어디엔가 불심이 자리잡고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불리우는 수월큰스님이 생각나 마지막으로 스님 뵙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각사에서부터 불교 공부를 해 오던 터라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염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월스님이 계신 화엄사스님과 신도 몇분을 만나게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수월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불교에 심취하게 됐습니다. 당시 화엄사에서 열흘간 있었는데 스님들은 독립운동은 그만두고 출가할 것을 은근히 권했고 수월스님은 제자들에게 "자네들이 이 독립군의 출가를 권하지 않아도 불법에 인연이 있어서 반드시 승려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몽고에서 온 마루오사대 고승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그대들이 원하는 독립은 꼭 올것이네. 출가수행자가 되어 한나라 민족을 구하는 일과 함께 천하중생을 제도하는 원력을 세워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독립운동 단체간의 파벌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조국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앞에서 세력다툼을 벌이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동족의 다툼을 보고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천하중생을 제도하자는 대원력을 세워보라는 마루오사대 스님의 법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몽고로 들어가 모루웨나 사원의 마루오사대화상를 은사로 득도했습니다.

득도이후 약 10여년간 몽고에서 호마루 불교전수대학과 우루무치의 메이오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신강의 히브롯다 종립 원각사내 브로뇌오조사 문하에서 선학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불교공부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보니 해방이 되더군요. 해방이 되면서 곧바로 조국으로 돌아와 오대산 월정사에서 본격적인 선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여기저기 선방에서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중이란 모름지기 이런저런 명리에 끄달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후 내 가고 싶은 대로 제방선원을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선방다니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지요. 불교공부 한답시고 출가해 부처님밥을 먹고 사는데 성불못하면 대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곳 도화산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0여년간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양시간만되면 무섭습니다. 공양물들이 어떤 음식입니까. 여러 선남선녀들이 스님들 뒷바라지 한다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모아온 양식인데 허투로 받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가기전에 밥값을 해야 하는데 큰 일입니다. 아마 내가 이제 갈때가 되었나 봅니다. 이런 생각을 다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방에서 수행중인 스님들은 쌀 한톨, 김치 한조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스님들은 선방의 좌복이 가시방석일겝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양의 의미조차 모르고 포식하며 수행을 게을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공양을 받을때에는 오직 그 배고픔의 괴로움을 겨우 없앨 정도로 먹어야 합니다. 함부로 많은 음식을 취하면 착한 마음을 헐게돼 잡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업이 쌓이면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듯 수행의 장애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때는 떨어지는 폭포처럼 막을 수도 없고 대신 받을 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고승 백장회해스님도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이란 다름아닌 불작수행(佛作修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속에서 진리와 지혜를 기르는 가장 쉽고도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삶, 바르고 옳은 삶을 위해 펼치는 행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정리=김중근 기자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분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공부하는데 장애가 따릅니다

문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장애가 따르고 마음도 편치 못합니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창국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답 초조해 하지도 말고 게으름을 피우지도 말고 해 나갈 수 있는 대로 묵묵히, 열심히 해보세요.

산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생각 저 생각 나게 마련인데 이 생각이 나거든 놓고 저 생각이 나거든 그것도 놓고 가세요.

울고 싶거들랑 주인공 붙잡고 울고 감사하거들랑 주인공 붙잡고 감사해 하고…. 그렇게 돌려 놓으면서 한 일년쯤 계속해보세요. 체험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렇게 놓을 줄은 모르고 껍데기로써 애만 쓴단 말입니다.

저 콩깍지가 말입니다. 아주 잘 익으면 절로 탁 벌어져서 톡 건드리기만해도 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덜 익었을땐 어떻습니까? 잘 까지지도 않고 콩이 야물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는 것도 그와같고 해탈을 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 껍데기로 애를 써서는 옷 벗기도 힘들고 해탈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진짜 주인을 믿고 일체를 더불어 주인공에 놓고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하게 보아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떠보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고…, 하고 많은 살림살이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꿈으로도 보여주고 생시로도 보여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거기에 속아넘어 갑니다.

이이고 죽겠다느니, 내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느니, 때로는 좋아서 어쩔줄 모르기도 하고…. 주인공이 이 껍데기에 얽매여 사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번번히 속아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글쎄 그런 줄은 알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이냐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걸려들고 자기가 속아넘어가면서 그래 인간이니 다 그렇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마음공부 한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만해도 도가 아니고 알기만해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기만하면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분이라면 모든 경계에 속지말고 경계를 재료삼아서 가르침을 터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場 이론과 마음공부 같은지요

문 현대물리학을 대표하는 양자역학의 차원에서 보면 입자의 세계엔 생멸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장(場)이라는 말을 쓰고 그 장의 개념은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집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체 · 공심 · 공생 · 공용 · 공식도 그런 개념이신지요?

〈문철상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답 내가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처님 법이 다 그렇습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적으로야 입자니 소립자니 하는데까지 가고 있지만 일체가 지 · 수 · 화 · 풍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입자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로써 세상을 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소립자의 세계를 들여다 본다고 해도 거기엔 어쩔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무엇을 본다고 할때에 천체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심안으로 본다면 멀다 가깝다, 크다 작다가 없어서 수천 수만억 광년이라 할지라도 코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게 다 둘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기에 그걸 가서 보고 쪼개서 보는게 아니라 명경같이 밝은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세계, 과학의 차원에서 도저히 볼수 없는 나머지 반쪽을 볼 수 있다는 말입지요.

그러니까 유위 무위를 둘이 아니게 본다는 말입니다. 본래 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과학이라도 심성과학이 되지 않고는 전체를 볼 수가 없고 전체를 모르는 한에는 자재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과학이 극도로 발달돼서 절로 오신통의 경지에 간다해도 누진통이 아니면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세요!
이영숙원장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이자임결혼연구원'을
「현대정보결혼연구원」으로
명칭을 새롭게 改名하였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멋진 혼인문화를 구상하며
새로운 각도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이 영 숙(본명)

성원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미래지향적으로
불자님 자녀의 결혼관이
이상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일을 더 큰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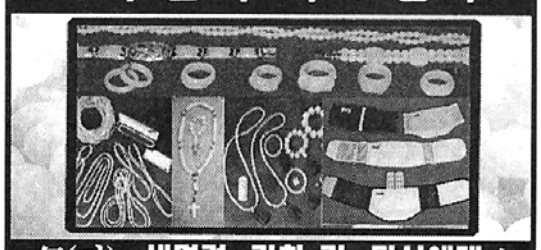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과정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μV 연옥사용후 3.0μV로 체내전압 상승

알파파(α) 현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20여종의 뇌내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찝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玉山家 옥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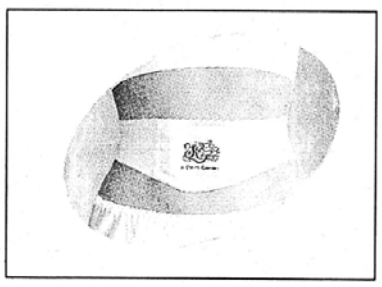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동무례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얇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